음양오행설과 재림

(마24:29-31)

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음양오행설과 재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종말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웬 음양오행설이 언급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음양오행설이 뭡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볼 때 음양오행설이라는 것이 천지의 삼라만상이 생성하고 소멸하고 그리고 그것이 변화해 가는 원리를 말합니다.
즉, 삼라만상의 생성과 소멸과 변화의 움직임을 설명해내려는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
이 가설인 음양오행설의 가장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태양계의 움직임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론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수금지화목토천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데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섯 개의 별이 모든 별들의 성격을 규정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일주일 중의 일월을 제외한 다섯 날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다르지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나갑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고 달이 있어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음과 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여갈 때에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 다섯 가지 별이 거기에 맞추어서 변화를 일으킨다.
이 대우주의 원리가 바로 인간사회에 그대로 적용돼서 목=나무, 화=불, 토=흙, 금=철, 수=물, 이 다섯 가지의 근본 기운이 음과 양의 상생상극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면서, 천지만물이 운행되고 생성되고 인간사회가 움직여지고 있고 소우주인 인간의 인체 역시 이렇게 음양오행설에 기초해서 운행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오장오부로 되어 있어요, 보통 오장육부라고 하는데, 마지막 육부는 해부학적인 장기가 아니에요, 그냥 인체의 부분부분을 나누어서 말할 때 들어가는 말이고, 실제로는 오장오부예요.
또, 맛도 오미(五味), 신맛,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 그리고 방위도 4방위가 아니라 5방위가 있습니다, 우주와 이 사회와 인간을 설명하기 위한 이 오행설에 따라서.
동서남북이 있고 중앙이라는 방위가 하나 더 있어서 5방위입니다.
그리고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환절기라는 계절이 중간에 또 끼어들어 갑니다.
이게 음양오행설이에요.
이 음양오행설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관 지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자기 신체로부터 시작해서 사람 사는 사회와 이 세상을 설명하려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음양오행설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해와 달이 없어집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음양오행설의 가장 우선적인 근거가 되었던 해와 달, 음과 양이 없어지고, 그리고 목화토금수로 대표되어지는 이 천지의 기운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때 모든 민족이 통곡을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통곡을 할까요?

음양오행의 가설로 설명하려고 했던 이 천지 자체가 다 찢어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동양학적으로 음양오행설이지만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27절의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번갯불처럼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드린 적이 있지요? 빛의 속도로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제로가 됩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립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다는 것은 공간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공간의 차원이 찢어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설날 귀경길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이 걸린다, 부산에서 서울이라는 공간의 움직임이 있고 그것이 시간으로 환산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가 되면 시간이 멈춰지고 공간의 차원을 벗어나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찢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동양학적으로 음양오행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재림 때는 해와 달이 없어지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하늘의 별들이 다 없어져버리고, 물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때 왜 웁니까? 모든 민족이 통곡을 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억울해서 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어떤 글에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평생 먹고 살아도 남고 풍족할 수 있을 돈을 벌어놓고, 암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돈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모자라지 않는 풍족한 돈을 다 벌어놓았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이 우는 이유는 뭐냐?
억울하기는 억울한데, 돈을 벌어놓고 죽었기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아서 예수님 앞에 임할 때, 벌어놓은 돈 자체가 휴지이기 때문에 운다는 겁니다.

너무나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 땅 위에서 이룬 성공이라고 하는 것, 성공을 이뤄놓고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데도 그렇게 이루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휴지조각이라는 것 때문에 운다는 겁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리라.'
예수님이 완전히 내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싸인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통곡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통곡의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그때 비로소 진짜 기쁨의 이유가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에 채워서 기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그 재림 때 드러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영원히 유일하게 참된 기쁨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돼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욕구불만, 지옥에서는 이루고 싶은 욕구는 커지는데 이룰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못된 욕구라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을 때, 때로는 돈이 벌릴 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에게 하루라도 매상이 크게 올라서 기쁠 수도 있는데, 욕구는 커져 가는데 영원히 단 한 순간도 그 마음을 채워서 기뻐질 수 있는 순간이 주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림 때, 시공간 안에서 음양오행설로 해와 달과 별들이 뜨고 지는 이 우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 자들이 울게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들,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십니다.
한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찢어져 버립니다.
시간과 공간이 찢어져버린다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오는 길이 7시간 8시간 걸린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서울이 부산에 있고 부산이 서울에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서울 생각하면 서울에 가있고, 부산 생각하면 부산에 가있고, 또한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미래가 지금이고 과거가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이고, 그냥 예수님 만나고 있는 지금 안에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지은 죄가 예수님 앞에서면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의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방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받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앞에 바로 그랬잖아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이 일을 개인적으로 앞서서 경험한 자들이 택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음양오행설로 이 세상을 설명하려 했던 의도 자체가 죽어버린 자들, 이들이 바로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음양오행설을 만들어서 세상을 설명하려 했던 이유가 근본적으로 뭡니까?
빛을 발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돈 많이 벌었다는 기쁨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애인을 사귀면 애인 때문에 기쁨이 생기면서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음악콩쿨 대회에서 일등 하면 상을 받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음양오행설을 대우주의 운행을 통하여 만들어내서 이 세상을 설명하려 한 모든 자들이 그 마음속에 빛이 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잃어버려요, 선택받은 백성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콩쿨대회에 나가서 일등하려는 마음, 돈 많이 벌려는 마음, 애인을 통해 기뻐하려는 마음, 이 모든 기쁨을 다 포기한 자들이고 기쁨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빛을 잃은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빛이에요.
희망과 영광을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해가 지고 달이 지고, 별이 졌다는 것은 해, 달, 별처럼 반짝반짝 빛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 음양오행설로 설명하려는 이 천지간에서 다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천지에 암흑이 덮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암흑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음양오행설로 설명하려는 이 세상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나 개인에게 이미 찢어져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설명하려는 관심도 없어지고 세상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햇빛과 달빛과 별빛같이 이 우주 안에서 천지간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희망도 영광도 다 죽어버린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빛을 원합니까?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는 것은 항상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이 천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구분되어 있는 천국의 차원을 구름으로 상징합니다.
그 천국에서 예수님이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이게 재림 때거든요, 이 재림을 십자가에서 미리 맛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나고 달처럼 빛나고, 별처럼 반짝거리는 세상 안에서의 모든 희망과 영광을 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버리고 음양오행설로 설명하려는 이 천지가 내 마음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찢어져버리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죽어버리고, 하늘에서 주님의 빛만을 향하여 마음이 고정된 자들, 이들이 바로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재림이 우주적 종말 때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내 마음 안에서, 대우주와 소우주가 있는 것처럼, 소종말이 이루어집니다.
소종말이 이루어지면서 대종말 때에 온 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임하실 예수님께서 나 개인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늘을 보며 태양과 달을 양과 음으로 그리고 별들을 천지의 기운으로 설명하면서 음양오행설을 만들어냅니까?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에요, 세상살이에 대한 관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세상 자체가 본래의 속성이 뭐냐 하면 예수님 재림 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었고, 예수님께서 천년 뒤에 재림하신다고 해도 오늘 내가 살았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일평생을 드리며 살며 노력하고 설명하려 했고, 해석하려 했고, 분석하려 했던 모든 이 음양오행설로 설명하려 하는 이 세상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물거품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울게 될 거라는 얘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해와 달이 없어지고, 별이 없어진다, 해와 달과 별, 이것이 바로 동양에서는 내 삶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해석하고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음양오행설이 등장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종말에 관한 예언을 접하면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해와 달과 별들로 이루어진 이 천지 안에서는 내 마음을 채워서 내가 빛이 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가자는 겁니다.
십자가로 죽어서 이 천지에 대한 구속력이 다 찢어져 없어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해처럼 빛나고, 달처럼 빛나고, 별처럼 반짝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마음에 빛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자, 이들이 바로 택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음양오행설과 재림, 그 의미를 이제 알겠습니까?
음양오행설, 관심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가정의 삶을 해석하고 분석하려는 것, 내 인생을 전망하려는 것, 이 땅 위에서 어떡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 나라의 문제, 증권시장의 상황을 분석하려는 이 모든 것이 다 해와 달과 별들로 이루어진 이 천지를 설명하려는 음양오행설의 의도와 같은데, 이 음양오행설을 말하는 의도로 세상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 이 마음으로 살아서는 택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죽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만이 선택받은 백성이 허락받은 마음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음양오행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여 가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음양오행설에 관심을 끊고 천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천지의 사물을 생성하게 하시고 소멸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죽는 것이 종말과 재림을 미리 알려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삶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개선시키려는 이 관심 자체가 죽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쏠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관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보고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